사천 평안사 창건 20주년 개산대재 봉행

"회주스님 말씀 화두로 정진, 지역 밝히는 도량 될 것"

11월 5일, 평안사 대웅전서 장학금 모금 위한 바자회도 마가스님 등 사부대중 참석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사천 지역에서 전법 · 포교에 매진 중인 평안사(주지 지현)가 창건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천 평안사는 11월 5일 대웅전에서 20주년 개산대재와 장학금 모금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청련암 주지 원명 스님 등 지역 사찰 스님들과 안정임 평안사 신도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옥천사 옥샘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1부 개산법회, 2부 장학금 조성 바자회 등으로 진행됐다.



사천 평안사는 11월 5일 대웅전에서 20주년 개산대재와 장학금 모금 바자회를 개최했다.

평안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회주 보선 스님의 말씀을 화두로 삼고 정진하고 있다"면서 "보선 스님이 창건한 평안사가 지역 사회를 밝히는 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초청 법사로 법상에 오른 마가 스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뒤 법문을 진행했다. 특히 마가 스님은 절에 다니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사찰을 하나 일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회주 보선 스님의 원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면서 "사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상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설했다.

안정임 신도회장은 "창건 20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회주 보선 스님의 가르침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우리 평안사 신도들은 분별없는 마음으로 스님들을 외호하고 지역 불교 발전에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평안사는 2002년 12월 3일 창건주 보선 스님이 지역 전법 · 포교 원력으로 개산했다.

창건 직후부터 평안사는 승가원 휠체어 제작비 지원, 산청초교 장학금 지원, 육군 논산훈련소 군법당 신축 불사금 보시, 진주 총림사 유치원 설립 보시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2018년 현재 주지인 지현 스님이 부임하며 평안사를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 말사로 등록하는 등 일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에는 평안사 장학회를 설립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북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 무료국수 나눔

한문화국제협회 공동으로 진행 내년부터 매주 1회 진행 예정

이웃에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설립된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복지관(관장 김경은, 이하 붓다복지관)'과 한문화국제협회(이사장 김관수)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은 11월 9일 복지관 옆 마당에서 무료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이 11월 9일 복지관 옆 마당에서 진행한 국수 나눔 봉사활동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 첫날인 이날 국수 나눔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익산 태봉사 법진 스님, 이재현 나누우리 봉사단장, 탑밴드 봉사단, 한문화국제협회 봉사단이 동참했으며, 인근 직장인,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복지관에서 제공한 국수로 점심식사를 했다.

직장 동료들과 복지관을 찾은 한 직장인은 "물가가 너무 올라 점심식사 비용도 큰 부담이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국수나눔을 한다고 해서 동료들과 함께 찾았다"며 "맛도 좋고 봉사자들도 친절해 부담 없이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둔 붓다복지관과 한문화국제협회는 11월과 12월에 격주로 무료국수, 동지팥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주 1회 무료 국수 나눔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다.

붓다복지관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시민을 위로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무료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열게됐다" 며 "붓다복지관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시민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붓다복지관이 주최하고 나누우리 봉사단, 탑밴드 봉사단, 한문화국제협회 봉사단, (사)장엄, 마이산 탑사, 태고종 전북종무원, (사)재백, 전북문화관광연구소의 후원과 한문화국제협회주관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지사장

울산불교종단사암聯,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반야심경 봉독 극락왕생 기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행렬이 전국 사찰에서 이어지고 있다. 참사 희생자 3명이 발생한 울산지역을 대표해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회장 산옹) 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은 11월 3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번 추모 울산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백양사 주지)을 비롯해 정관암 대활 스님, 정광사 화산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도솔암 덕송 스님, 한마음선원 혜자 스님, 신흥사 종현 스님, 덕원사 덕원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이병호 신도회장,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임원진, 울산조계종연합회 임원진, 울산불교신도회 임원진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중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회장 산옹 스님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잘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울산신도회 회장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보은사, 카티나 법회 봉행



스리랑카 불자 200여 명 참여 스리랑카 전통의식 카티나법회 안거 마친 스님들께 가사 공양

송광사 광주포교당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11월 6일 대웅전에서 카티나법회를 봉행했다.

카티나법회란 스리랑카의 전통의식으로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남방불교 최대 전통축제 가운데 하나이다.

보은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과 법회를 활발히 진행하는 곳으로, 이날 법회에는 스리랑카 불자 200여 명이 참여해 스리랑카스님을 비롯한 11명의 스님에게 가사를 올리고, 고국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보은사 수담마 스님, 마하비하라 주지 까디 스님, 완키사 스님, 싸르나 스님, 광주 무각사 티싸, 반냐 스님, 인다키띠 스님, 캄보디아 파야사라, 쏘타단 스님, 보은사 강덕 스님 등 전국에서 온 스리랑카, 캄보디아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은사 후원회장 정일영, 신도회장 최창인 등과 스리랑카 근로자 등이 참여해 고국의 불교명절을 함께했다.

라훌라 스님의 통역으로 진행한 행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후 인사말, 축사, 음성공양(목련합창단),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기도, 가사공양, 스리랑카 법문, 공양금 전달식,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수담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와주신 스님들과 근로자, 이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먼 타국에 와 있지만 늘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지내길 기원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학원, 고3 수험생 선물전달



고득점 합격 기원 초콜릿 전달 정광高 3학년생 350명에 선물 이사장 덕문스님 직접 교실방문

불교종립 정광학원이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다.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은 수능시험을 앞둔 11월 9일 정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 350명에게 수능시험 고득점을 기원하고 합격진학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초콜릿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덕문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국장스님들은 3학년 교실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학교생활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3년간의 학교생활 중 1학년 때에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친구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2학년과 3학년 내내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런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하는 이사장 덕문 스님과 학교 측은 선물과 정성을 들인 마음으로 시험을 앞둔 아이들을 격려했다.

덕문 스님은 3학년 교실을 일일이 돌며 "수능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이 아니다. 각자의 길이 다 있으니 두려워 말고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학원은 매년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전달했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광주지역 유일의 종립학교로, 만암 스님이 광주전남지역 교구본사와 함께 지난 1946년 개교했다. 현재 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지역 사학명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 삼봉사 이태원 참사 추모 49재 입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삼봉사(회주 녹원)는 11월 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 49재 초재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초재에는 회주 녹원 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삼봉사는 녹원 스님의 집전으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영가를 위로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녹원 스님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예토세계는 공업의 인과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번 49재를 통해 불교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한편, 삼봉사는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49재를 지내며, 7재인 12월 16일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담 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고성 옥천사, 9일 경상국립대서 청담사상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 대종사 모교서 첫 다례재 '눈길'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 발전을 이끈 청담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재가 열렸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와 청담사상연구소,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는 11월 9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청담 대종사 동상 앞에서 '청담 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경상국립대는 청담 대종사의 모교로, 모교에서 다례재가 봉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례재에는 청담 대종사 직계 상좌 정혜 스님과 손상좌인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도감 종석 스님, 약사정사 진여 스님, 청련암 원명 스님, 동국대 박사과정 도경 스님, 허익구 청담사상연구소 명예소장, 김규범 교수, 김용진 경상국립대 교수불자회장, 강인식 진주불교청년회장, 배설화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청담 대종사는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셨으며, 국립경상대학과 진주시를 빛낸 최고의 선지식"이라며 "대종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기념관 건립 등 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 불자 양성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다례재는 마가 스님의 헌향과 직계 상좌인 정혜 스님 등의 헌다, 허익구 명예소장의 행장 소개, 배설화 회장의 헌시 '마음의 노래' 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앞서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는 청담 대종사의 동상과 시비를 청소했다.

한편, 청담 대종사는 경상국립대 전신인 진주공립농업학교를 1925년에 졸업했으며, 1926년 고성 옥천사로 출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